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

오늘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공부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 : 20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문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누가복음 17 : 21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예수님은 대답하시길,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지구 상에 이스라엘 민족 만큼 노예 생활을 많이 한 민족은 없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430 년동안 종살이를 했고, 주전 약 580 년 전에는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고, 그 후부터 나라에 주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70 년 동안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상실한 유대 사람들은 메시아가 와서 잃어버린 주권을 다시 찾아 주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이런 질문은 자신들의 현실적 문제에 대한 아주 절박한 내용이 담긴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2000 년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한 질문은 지금의 우리와는 관련이 없을가요?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은 현대의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다시 질문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지 10 년, 20 년, 30 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10 년이 가까워 오는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드리고, 하늘 나라의 공급자이신 예수님께 하늘 나라를 공급받아 행복한 삶을 살게 해드리고자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I.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우리 다시 한번 누가복음 17:20 에서 21 절을 읽어 보십시오.

누가복음 17 : 20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물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누가복음 17 : 21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말에서 ‘안에’ 라는 말은 헬라어 *entos* 를 번역한 말인데 영어로는 *inside* 라는 뜻입니다. 이 *entos* 는 마 23:26 에서 “너희가 먼저 안(*entos*)을 깨끗이 하라” 할 때 ‘안’에도 같은 *entos* 가 쓰였습니다.

마태복음 23 : 26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길도 깨끗하리라

Matthew 23:26 (KJV) ²⁶ *Thou blind Pharisee, cleanse first that which is within the cup and platter, that the outside of them may be clean also.*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너희 마음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너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은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거예요. 내 위치에 있어봐요, 그런 말은 할 수 없을 테니.”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마음의 행복이 환경에서 오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행복은 자기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늘 나라가 좋은 환경에서 오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이 사람은 결혼도 못했습니다. 빈털터리이니까 시집을 여자도 없었을 겁니다.

감옥은 가끔 드나들었습니다. 동일한 죄목으로 자꾸 감옥에 드나드니 상습범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주위의 동족들에게는 하도 미움을 받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선 하루가 멀다 하고 이리로 저리로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어떤 때는 붙잡혀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태에 대해 고백하기를,

고린도후서 11 : 23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고린도후서 11 : 24 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번 맞았으며

고린도후서 11 : 25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깊은에서 지냈으며

고린도후서 11 : 26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고린도후서 11 : 27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은 견디기 어려운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산 사람입니다. 어느 구석을 보아도 찾아 행복의 조건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자신을 소개하기를

고린도후서 6 : 9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고린도후서 6 : 10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고린도후서 7 : 4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13 : 11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훨씬 더 여건이 좋은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위로를 받으라, 평안하라’ 고 외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기쁨과 평안, 위로는 좋은 환경으로부터 얻어진 그런 기쁨, 평안, 위로는 아닙니다.

그의 환경의 어려움은 오히려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런 기쁨, 평안, 위로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환경이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자신을 온전히 지배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신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 환경을 능가하는 기쁨과 위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난의 바다 한 가운데 떠 있는 것 같은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천국은 현재의 여러분 마음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하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하늘 나라가 변하길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 분의 교회가 하늘 나라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 비길데 없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으신 분은 아멘하십시오.

II.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나라’ 영어로는 kingdom,이라는 말의 뜻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Kingdom은 헬라어 바실레이아를 번역한 말인데, 하나님의 통치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은 국경으로 둘러 쌓인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kingdom은 지역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메시아가 다스리는 지역이 있어서 그 곳에 입장을 하면 하늘 나라가 시작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100 년을 신앙 생활을 하여도 하나님의 나라는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 Kingdom은 히브리어 말쿠트(Str. # 4438, mal-kooth)를 번역한 말인데 이것은 국경으로 둘러 쌓인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행위를 말합니다.

시편 103 : 19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19 The LORD hath prepared his throne in the heavens; and his kingdom ruleth over all.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는 "his kingdom rule over all." "His Mal-kooth rule over all. 그의 통치는 모든 것에 미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kingdom을 지역으로 해석하면 의미가 통하지 않습니다.

또

사무엘상 13 : 14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1 Samuel 13:14

But now **thy kingdom** shall not continue: the Lord hath sought him a man after his own heart, and the Lord hath commanded him to be captain over his people, because thou hast not kept that which the Lord commanded thee.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 여기서 왕의 나라가 **kingdom** 으로 (Str. # 4467) '말구트 '입니다. 그래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리라는 말은 왕의 통치가 길지 못하리라는 말입니다. 왕의 나라를 지역으로 해석하면 의미가 통하지 않습니다.

나라인 kingdom 은 바실레이아 이며, 말구트로 통치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지역에 들어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면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10 년을 교회 다녔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스리지 않으면 그 사람에겐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교회에 다녀도 하늘 나라는 맛도 못보고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스리시지 않는 교회는 100 년이 된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한 방울도 맛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전인격을 완전히 지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통치가 그 사람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둘째 사람 예수님 안에서 모범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둘째 사람으로 오신 분입니다(고린도전서 15 : 47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둘째 사람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새로운 인류의 시작으로 오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인류에게 새로운 삶의 모델을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아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를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0 : 30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내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만 하시므로 나를 혼자 있게 하지 않으셨다’ 는 말로 표현하셨고,

요한복음 8 : 29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요 17:23 에서는 ‘아버지와 내가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었다’ 고도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져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이것을 hypostatic Union, 이성일위하고 합니다.

이 이성일위의 삶은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의 이성이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는 신성이 인성을 완전히 지배하시어 일위의 인격을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신 말은 이성일위가 이루어졌다는 말과 한치의 차이도 없습니다.

신성이 인성을 완전한 지배하여 하나의 인격을 이룬 것, 이것이 이성일위이며, 이것이 이루어진 삶이 이성일위의 삶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신성이 인성을 지배한다는 말이 바로 통치의 개념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최초로 하신 설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신 말씀도,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 천국을 이루려면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중생한 우리는 성령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성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는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의 인성을 완전히 지배하면 우리도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을 따라 이성일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서 하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순전하게

우리의 전 인격을 성령께서 통치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데 달려 있습니다.

신성이 우리의 인성을 완전히 다스리느냐 마느냐 하는데 달려 있습니다.

신성이 인성을 완전하게 지배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하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전인격을 지배하면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져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살 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고 나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육신의 몸을 벗고 나서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III. 다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안에 이루기 위한 가장 첫 번째 기본적인 step 은

자신의 의지력의 한계를 잘 아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교회의 가르침은 성령 충만해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하며

하늘의 것에 치중해왔습니다.

그래서 위엣 것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 아래에 무엇이 있는 줄 몰라 받은 은혜를 유지할 못합니다. 하늘만 바라보고 걷다가 발밑의 구덩이에 빠지는 격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선 위엣 것을 잘 알아야 하지만,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선 우리의 의지력의 한계를 잘 알아야 만 합니다.

신앙 생활은 어떤 부분은 우리에게 행하라는 의지에 대한 명령이 있고,
어떤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 은혜를 힘입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생활을 자기 힘으로만 하려 해서도 안되고
또 은혜를 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어도 안됩니다.

이것이 적절히 배합이 되어 있어야 하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의지력의 한계를 잘 아는 것이 될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만들어 가질 수가 없습니다. 초자연적 은사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제 말이 틀리나 한 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런 결심을 해보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이 은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을 것이며, 항상 마음을 평안히 가질 것이며, 항상 기뻐하겠다고 말입니다.

하루를 유지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계속 은혜가 공급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인간의 의지력으로 성취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 하기 위해선 하늘을 향하여 문이 항상 열려 있어야 하며, 그곳으로부터 항상 은혜가 공급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늘 나라는 끊임없이 하늘로부터 은혜가 공급되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늘로부터 은혜가 공급되니 하늘 나라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절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기도를 열심히 하던 사람이라고 해서 오늘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은혜는 메말라 버려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지력의 한계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선, 먼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을 마음의 문을 열어 놓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로부터 은혜가 공급되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의지로 행하여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다음에 아주 또 중요한 것이 생각의 문제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10 : 4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고린도후서 10 : 5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

여러분이 이런 결심을 해보십시오,

기도를 하루에 10 분씩 꼭 하겠다. 그런데 10 분 동안 정신 집중을 해서, 집중이 흠으러짐이 없이 기도를 하겠다. 해보십시오.

3 분 집중해서 하면 오래 집중하는 것입니다. 10 분 중에서 7 분은 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하루에 5 만 5 천가지 생각으로 머리가 짝 차 있다는 말은

심리학적으로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5 만 5 천 가지 생각이 우리의 머리속을 지나 갑니다.

우리가 하루 12 시간씩 깨어 있다고 치면, 5 만 5 천 가지 생각중에서 1/10 만 계산하여도,

1 분에 약 8 가지 생각을 한다는 결론입니다.

한가지 생각을 5 초씩 한다고 치면 1 분에 40 초는 딴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 분의 2/3 는 잡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이고, 10 분 간 기도를 하면 6-7 분은 잡생각을 한다는 결론입니다. 하루 12 시간 중에서 8 시간은 잡생각을 하면서 지냅니다.

60 살을 한 평생으로 잡으면 40 년은 잡생각으로 허송하는 것이고,

이렇게 잡생각으로 채워진 마음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상실한 영적 주권의 참담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슴 아파 아파 하며 되찾아야 할 우리의 주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이 로마에서 해방되는 것인 줄 알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우리는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 주권을 찾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음에 천국을 이루기 원하는 사람은,

생각이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영적인 것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성령의 영적 통치는 생각에 대한 주권을 회복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생각에 대한 통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적 주권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은

마음이 그냥 흘러 가는데로 놔두면 안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

이 정처없이 헤매는 생각들을 하나님께로 돌리려는 의지적인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이 것이 바로 중생한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의지적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주권이 계속 유지되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의지의 부분입니다.

의지적 노력을 하지 않는데 강제로 붙잡아다가 하나님이 기도 하라고 꿇어 앉혀 놓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자신이 노력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여 우리의 의지가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의 마음 속에 이루기 원하는 사람은 힘들어도 기도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정신집중을 하기 어려워도 자꾸 집중하는 의지적 훈련을 일평생 해야 합니다. 매일 매일 매시간 매초마다 정처없이 헤매는 생각을 사로 잡아 하느님께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입장권은 믿음으로 은혜로 받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저는 저의 영적 condition 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에 2 시간씩 아침 4 시에 일어나 집에서 집중하여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언제나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하늘 나라의 공급자라는 것입니다.

하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하늘 나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왕성하게 활동하셔서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없이 불가능합니다.

기도에 더욱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 분만 시간을 내셔서 twi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글을 올리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됩니다.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twitter

1. twitter.com 으로 가셔서 로그인을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을 하세요

(twitter 안에서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